

## 論壇



## 目次

1. 序論
2. 우리나라 再保險의 實態와 現況
3. 우리나라 再保險去來의 問題點
4. 再保險의 進路
  - 가. 國內再保險去來의 商業化
  - 나. 海外市場의 多邊化
  - 다. 保有的 極大化
  - 라. 人力의 精銳化
  - 마. 事務의 電算化
5. 結論

### 1. 序論

우리나라 保險產業은 全世界에서 그 類例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비록 그 規模는 작지만 이제는 先進保險國隊列에 당당히 躰 수 있게 되었다.

1962年 겨우 18億원에 不過했던 收入保險料가

# 民營化에 따른 再保險의 進路

朴 恩 會

<大韓再保險(株)·社長>

1977년에는 2,697億원으로 무려 150배의 높은 伸張을 보였으며, 總保險料가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1962年의 0.5%에서 1977년에는 1.8%로 거의 4배나 增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保險產業은 先進外國의 保險產業과 比較해 볼 때 아직도 그 規模面에서 크게 落後되어 있는 實情이다. 즉 1976年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GNP에 대한 保險料의 比重에서 美國(7.24%), 호주(6.16%), 英國(5.61%), 스위스(5.28%), 네델란드(5.16%), 캐나다(5.12%)등 先進保險國들이 5% 이상을 占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8%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收入保險料에 있어서도 美國이 123,643百萬弗로 世界保險市場의 49.46%를 占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57百萬弗로 겨우 0.2%에 不過하다. 그리고 1975年度를 基準으로 한 國民1人當 負擔保險料 역시 美國이 309.8弗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弗로 20분의 1에 不過한 實情이다.

그러므로 政府當局은 保險產業 自體의 育成發展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上 第4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主眼點인 「內資調達과 社會開發」의 擴

充을 期하기 위해 1977年 以後부터 「保險産業의 近代化」와 「保險國際化」를 主要課題로 設定하여 이를 強力하게 推進하고 있는 것이다.

「保險國際化」의 達成을 위해서는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先決要件이므로 再保險制度의 效率의 인 改善이 當面課題라 하겠다.

## 2. 우리나라 再保險의 實態와 現況

保險企業의 經營에 있어서는 그 經營上의 安全을 위하여 不意에 發生되는 危險負擔을 可及의으로 廣範圍하게 分散시켜 危險의 平準化를 期할 必要가 있으며 保險者는 再保險을 통하여 危險分散을 圖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再保險이란 保險者에게 危險分散을 可能케하여 保險引受나 保險會社의 組織 등 運營上에 彈力性을 부여함으로써 窮極의으로는 한 國家의 保險産業을 發展시키는 機能을 갖고 있다.

더우기 오늘날 같이 急激한 産業技術의 發達로 産業施設이 巨大化하고 復雜化됨으로써 保險危險이 大型化되며 繼續하여 새로운 危險이 創出되는 實情에 있어서는 危險分散의 制度的 裝置인 再保險制度가 없는 保險産業의 運營은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 國家의 保險發展에 重要な 關鍵이 되고 있는 再保險制度에 있어 우리나라는 그 간 많은 迂餘曲折의 渦中에서 成長되어 왔다.

즉 過去 國營再保公社 設立 以前에 있었던 民營再保險專業會社는 微弱한 資本을 保有하였기 때문에 受再能力이 不足하였으며, 國內 各原受社의 多元的인 再保險去來로 인한 不利한 契約條件과 再保險去來 技術의 未熟은 많은 外貨를 再保險料로 海外에 流出시킴으로써 海外再保險去來에 있어서 收支逆調 現象을 招來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當局은 再保險去來에 있어서의 이같은 現實을 克服하고 無秩序하고 多元的인 우리나라 再保險體系의 脆弱性을 改善하기 위해 1963年 3月 19日 國營의 大韓再保險公社를 設立하였으며, 그 후로 再保險公社는 우리나라 再保險去來를 專擔하여 短時日內에 再保險去來 條件을 改善시켰고, 積極的으로 再保險技術을 導入하였으며 外貨流出을 防止하여 收支逆調를 改善하는 등 國內再保險去來 體系의 整備를 통해 國內 損害保險産業의 安全性 構築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勿論 특히 國際市場에서의 韓國의 「이미지」부각과 保險人 資質向上을 통한 經營近代化 圖謀 등 保險産業의 發展을 위해 中樞的인 役割을 擔當하여 왔다.

여기서 參考的으로 우리나라 再保險去來 推移를 살펴보면 1962년에 177百萬원이었던 受再保險料가 1977년에는 139,298百萬원으로 무려 780여배나 伸張되었고, 出再保險料 역시 1962년에 261百萬원이었으나 1977년에는 142,417百萬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國內 再保險去來에 있어서는 1977年の 경우 10個 原保社와 2個 專業會社에서 再保公社로 出再한 再保險料 總額은 64,736百萬원으로 原保社出再 比率이 49.9%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가운데 16.04%에 해당되는 10,379百萬원은 再保公社가 保有하고, 49.91%에 해당되는 32,306百萬원은 國內에 再出再되었으며, 34.07%에 해당되는 22,051百萬원은 外國에 再出再되었다.

한편 再保社의 外國으로부터의 受再는 16,923百萬원으로 이중 33.93%에 해당되는 5,743百萬원은 再保社가 保有하고 나머지 66.07%에 해당하는 11,180百萬원중 11,148百萬원은 국내에, 그리고 32百萬원은 外國으로 再出再되었다.

다음 海外再保險 收支 現況을 살펴보면, 再保公社 獨占期間中인 1963年에서 1968年 사이에는

出再에 대한 受再의 比率이 不過 4.2%에 不過 했으나 制度的이나다 原受社의 再保去來가 多元化된 期間인 1969年 以後부터 1977年 사이에는 거의 60% 以上の 線으로 增加되었다.

그러나 海外 再保險去來上 특히 問題가 되는 것은 海外 再保險去來의 收支逆調 現象이다. 우리나라 海外再保險去來의 正味收支差額을 보면, 1973년에 14,581千弗, 1974년에 6,433千弗, 1975년에 17,952千弗, 1976년에 16,922千弗, 1977년에 9,799千弗 등 73年度 以後에는 거의 年平均 1,314千弗의 收支逆調 現象을 보이고 있어 이의 改善이 時急한 實情에 있는 것이다.

### 3. 우리나라 再保險去來의 問題點(民營化의 動機)

現在 우리 保險業界의 當面課題인 「保險產業의 近代化」와 「保險國際化」를 達成하기 위한 先決要件인 再保險 改善 問題에 있어서 앞으로의 進路를 效率의으로 設定하기 위해서는 먼저 現行 우리나라 再保險의 體系와 去來上의 問題點 및 그 原因을 규명하는 것이 必要하므로 간단히 記述하기로 하겠다.

#### 가. 再保公社의 再保險 獨占

우리나라 再保險去來上 가장 큰 問題點은 再保險公社의 再保險 獨占이라 할 수 있다. 再保窓口의 單一化는 短時日內에 外國과의 去來條件 改善에 크게 기여했으며, 우리나라 保險業界의 가장 深刻한 問題로 提起되어 왔던 外貨流出을 防止하는 등 國際收支逆調 改善에 크게 이바지 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① 自由競爭으로 얻어지는 國內損保社의 再保險 經營技術의 進歩를 어렵게 했고, ② 國內損保社가 再保險契約의 形

態, 出再比率, 再保險 與否 등을 選擇할 수 없게 함으로써 危險의 效率의 分散을 어렵게 했으며, ③ 海外再保險去來를 國內原保社가 積極의으로 推進할 수 없게 하였다.

一般的으로 保險技術이 落後된 開發途上 國家에서는 再保險窓口의 單一化는 多元化의 경우보다 短期的으로는 海外再保險去來로 인한 海外收支 不均衡의 改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長期的인 眼目에서 볼 때는 原保社의 健全한 育成만이 保險產業을 發展시키는 要諦인 同時에 海外收支 改善을 위한 窮極의인 方案이라는 事實은 外國의 保險史가 立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1962年 海外再保險去來의 多元化 措置 以後 몇 차례에 걸쳐 再保險 交換規程을 改正하여 段階的으로 原受社의 海外再保險 領域을 넓혀 왔으며, 그 結果 再保險의 經營과 技術에서 어느 程度 後進性을 脫皮하게 된 오늘에 와서는 再保公社의 民營化를 통해 海外再保險去來의 多元化를 制度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것이다.

#### 나. 海外再保險去來의 收支逆調

우리나라 再保險에 있어 또 하나의 問題點은 海外再保險去來에 있어서의 收支逆調 現象이다.

앞에서도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海外再保險去來의 收支逆調는 해마다 增加되어 왔는 바 그 主要原因은 ① 國內損保社의 擔保力 不足, ② 再保社에 대한 出再比率이 높아 原保社의 海外再保險 領域이 狹少함으로써 良質의 海外受再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點, ③ 長期的으로 保險產業 發展의 基盤이 되는 人力開發과 保險技術 向上을 위한 間接投資의 重要性을 無視하고 出再手 數料와 같은 短期的인 經營收益에만 置重하는 경향, ④ 資本과 再保險技術의 不足 및 海外情報 蒐集體制 결여 등에 따른 海外市場 直接參與

能力 不備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海外再保去來上의 收支逆調는 政策的 次元에서의 對備策이나 改善策이 마련되지 않는 限 오늘 날과 같이 急激한 産業의 發達로 保險危險이 巨大化되어 危險의 廣範圍한 國際的 分散이 不可避함으로써 再保險 交換이 國際化되어 가는 趨勢下에서는 더욱 增加될 可能性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再保險去來의 多元化를 통해 原保社의 再保險 領域을 擴大시켜 再保技術의 向上을 圖謀함으로써 國內保險産業의 均衡的인 發展을 期하기 위한 制度的 措置로 評價할 수 있는 再保社의 民營化는 우리나라 保險業界의 當面 目標인 近代化와 國際化를 達成하기 위한 基礎的 作業이며 나아가서는 만성적인 海外再保險 去來의 收支逆調를 改善하기 위한 政策的인 試圖라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 4. 再保險의 進路

經濟의 高度成長과 더불어 每年 急速한 成長 趨勢를 持續해 온 우리의 保險業界는 이제는 國內市場 依存 體制에서 脫皮하여 積極的으로 海外市場을 開拓함으로써 지금까지 겪고있던 만성적인 海外收支 逆調 現象에서 벗어나는 한편 世界속에 새로운 保險韓國의 「이미지」를 심어야 할 歷史的인 轉換點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政府當局에서도 77年 以後 「保險産業의 近代化」와 「保險國際化」를 強力하게 推進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目標을 成功的으로 達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先進國의 經濟政策에 對應함은 勿論 保險先進國과의 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再保險去來 體制 역시 이

러한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 가. 國內 再保險去來의 商業化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再保險 去來는 他律的인 規制에 依存하였기 때문에 國內原保社의 再保險 經營, 技術, 發展 및 積極的인 海外再保險 去來의 推進이 어려웠으며, 이는 結果的으로 우리나라가 海外再保險 去來에서 收支逆調 現象에 빠지게 된 要因이 되었다.

그러나 68年의 再保去來 多元化 措置 以後 原保險社들도 急成長하여 對外 公信力이 어느 程度 伸長된 한편 保險技術 역시 向上되었기 때문에 政府當局에서도 이번에 國內原受社에게 보다 많은 裁量을 부여하기 위하여 再保公社를 民營化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國內再保險 去來도 이같은 當局의 政策方向에 맞추어 段階的으로나마 自律的이고 商業的인 方向으로 轉換함으로써 「再保者를 위한 再保險」이 아니라 「原保者를 위한 再保險」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原保社와 再保社의 均衡的인 發展이 이룩되어 保險의 近代化와 保險國際化에 對備한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結果的으로 海外收支 逆調가 改善되고 長期的인 側面에서의 保險産業 發展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海外市場의 多邊化

오늘날 海外再保險 市場은 自國付保主義라는 새로운 障壁에 부딪치고 있다. 따라서 海外受再保險의 增大를 위해서는 國內 保險市場의 健全한 發展 土臺위에서 지금까지 受動的이고 安逸했던 再保險 引受 態度를 止揚하고 보다 積極的인 能動的으로 海外市場을 開拓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海外 店舖의 年次的인 擴大를 통해

去來 地域을 넓혀 나가야 한다.

그리고 海外市場의 積極的인 開拓과 並行하여 出·受再링크制를 實施함으로써 保險料의 一方의인 流出을 防止하고 受再限度를 引上해서 保險輸出을 增大해 나가야 될 것이다.

#### 다. 保有의 極大化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海外再保險去來는 國內原保社의 擔保力 不足으로 海外出再 比率이 지나치게 컸다. 日本의 경우 海外出再 比率이 不過 10%미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4%에 이르고 있어 이의 改善이 時急한 實情인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政府의 重點的인 重化學工業育成策이 實施되면서 保險危險이 巨大化될 경우 微弱한 國內損保社의 擔保能力을 감안할 때 海外出再의 增加 趨勢는 더욱 加速化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海外出再되는 國內物件은 外國과 比較해 볼 때 大部分 良質의 物件이므로 可能한 限 國內保有率을 增大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過多한 海外出再를 막아 收支逆調를 是正하기 위해서는 資本을 年次的으로 增大하여 擔保力을 提高시키는 한편 市場을 多邊化하여 危險을 分散시키면서 保有限度와 保有率을 점차 引上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라. 人力的 精銳化

保險은 큰 施設投資를 要하지 않고 訓練된 專門人力만으로도 充分히 開發하며 運營할 수 있는 一種의 技術集約的인 頭腦産業이다. 따라서 保險産業의 恒久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長期的인 眼目에서의 人力開發 및 技術開發을 위한 間接投資가 必要한 것이다. 더욱이 再保險은 한층

더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을 必要로 하는 業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知識과 經驗을 가진 再保險專門人的 確保가 必要한 것이다.

특히 産業의 發達과 國家間的 經濟交流 擴大에 따라 海外受再保險에 있어서 再保險商品이 多樣化되며 去來地域이 廣範圍하게 되는 現實에 있어서는 海外受再物件의 質을 正確하게 選別할 수 있는 高度의 「언더라이팅」技術을 所持하는 專門家の 育成이 時急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出再手數料에 執着하는 短期的인 經營方式에서 脫皮하여 不斷한 國內外研修를 통해 精銳化된 人力을 養成함으로써 國際保險市場에서 積極的인 受再活動을 展開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自己 訓練과 發展의 動機를 부여하기 위한 成果給制度를 實施하여 1人當 生産性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한 方案이 될 수도 있다.

#### 마. 事務의 電算化

保險産業은 그 成立의 基本要件이 確率統計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正確하고 迅速한 分析·整理가 保險産業 發展의 關鍵이 되는 再論의 餘地가 없을 것이다.

특히「保險近代化」및 「國際化」를 達成하기 위한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우리 保險業界의 當面課題로 부각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他國家에 비해 보다 有利한 保險料率 算定 및 迅速한 罹災處理가 이를 達成할 수 있는 切徑임은 明確한 事實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營業에 關聯되는 모든 計數業務을 電算化하여 事務의 簡素化와 標準化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先進保險國과의 國際再保險 競爭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5. 結 論

지금까지 우리나라 再保險의 實態와 앞으로의 進路에 대해 概略적으로 說明하였는 바 現在 우리 保險人들에게는 지금까지 成功的으로 達成해 온 高度의 量的成長을 持續하면서 다른 한편 質的 改善에 力點을 두어야 함은 勿論 再保險 體系를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改善하여 國際收支 逆調를 是正해야 하는 등 保險中進國에서 保險 先進國으로 飛躍하기 위해 解決해야 할 수많은 課題가 山積하여 있다.

이러한 課題는 政府當局이나 原保險者나 再保險者의 어느 하나에 단 부과된 課題가 아니라 우리 保險業界 全體에 부과된 課題이다. 따라서 保護貿易主義, 自國付保主義 등에 의해 國際保險企業 環境이 그다지 樂觀的이 아닌 어려운 與件속에서 先進外國 保險企業과의 競爭을 통해 우리의 保險産業을 世界的인 次元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政府當局과 監督機關의 合理的인 施策과 함께 이를 實踐하는 國內 原保社와 再保社가 다같이 巨視的인 經營姿勢를 가지면서 긴 밀한 協助體制를 構築해야 함을 強調하는 바이다.

### (新 開發 品)

## 溫度測定 콘트롤러

영국회사가 개발한 디지털온도 콘트롤러는 한器機로 온도의 측정과 콘트롤의 두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이 DTC 2는 실험실용으로 고안된 정밀한 온도 콘트롤러다.

따로 분리하거나 패들 또는 신반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는 222mm(폭)×102mm(높이)×305mm(길이).

이 디지털 표시는 틀속에 장치된 플러그삽입식 부품조립으로 형성돼 있다. 6.09m 거리에서 관독할 수 있는 12mm 4數字 led로 표시된다.

이 기계는 1도의 몇분의 1까지 온도를 콘트롤할 수 있고 표시의 정확성은 감응신호 장치나 레인지카드의 선택에 따른다.

거의 모든 감응신호 장치에 적합한30가지의 상이한 플러그 삽입식 레인지카드는 4.2K에서 부터 섭씨 2천 1백도 까지 온도 측정에이 용할 수 있다.

## 組立式 耐火주택 建材

최소한의 연장으로 누구나 손쉽게 세울 수 있는 組立式 住宅建築材(Guardian Housing System)가 나왔다.

지붕재료, 프로팅, 전기시설재, 수도개스관및 기타 필요한 철재가 모두 들어있는 이 조립식 건축재를 가지고 지붕과 마루에만 미장공의 손을 빌면 한채의 住宅을 금방 마련할 수 있다.

이 住宅은 화재의 위험이 없으며 虫害에 강하고 어떠한 氣候條件에도 적합하여 잔손질이 일 절 불 필요하다.